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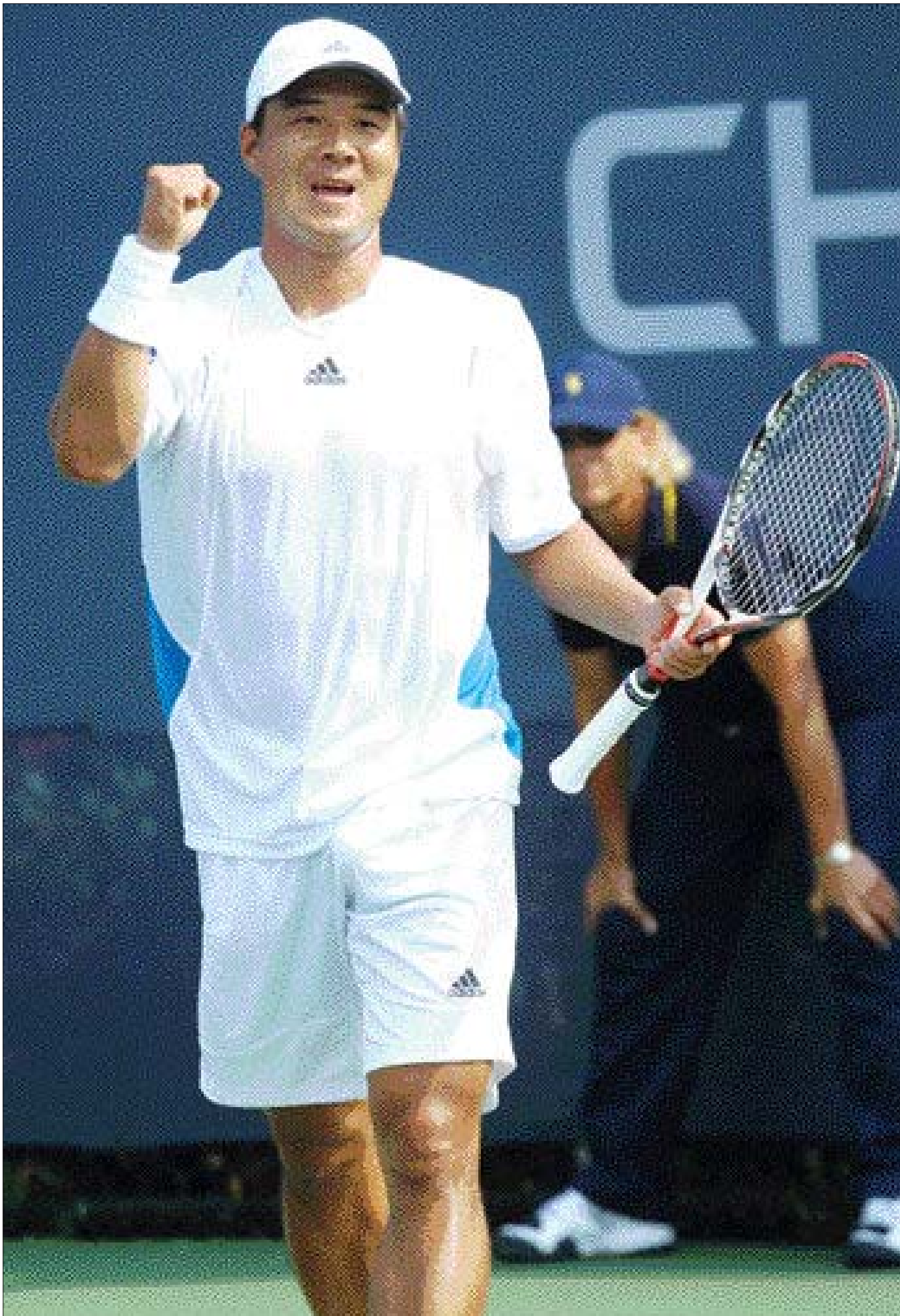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대어’ 잡았다

이형택이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테니스대회 2회전에서 강호 기에르모 카나스(14위·아르헨티나)를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이형택, 세계 14위 꺾었다

### US오픈테니스, 강호 카나스 3대0 제압 3회전 진출

이형택(세계랭킹 43위·삼성증권)이 총상금 184억원이 걸린 US오픈테니스대회에서 ‘대어’를 낚고 단식 3회전에 올랐다.

이형택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 빌리 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2회전에서 강호 기에르모 카나스(14위·아르헨티나)를 2시간 23분 만에 3-0(7-5 7-5 6-3)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32강이 겨루는 3회전에 진출했다.

올해 원정전에 이어 메이저대회 2회 연속

3회전 진출 및 이 대회에서 3년 만에 3회전에 진출한 이형택은 영국의 앤디 머레이(19위)와 4회전 티켓을 다했다.

“1회전만 잘 넘기면 2회전에서 시드 배정자를 만나도 자신있다”던 출사표처럼 이형택은 올해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를 두 번이나 격침시킨 카나스를 압도하는 놀라운 플레이로 패거리를 이룩했다.

이형택은 서브 에이스에서 3-16의 절대 열세를 활발한 네트 접근과 예리한 리턴 포

인트로 만회하며 카나스를 제압했다.

이형택은 스무살 신예 머레이와 올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새너제이 SAP 오픈 8강에서 한 차례 대적했고 1-2(6-4 3-6 6-7(4-7))로 아깝게 패했다.

이형택이 머레이 벽마저 넘는다면 2000년 이후 7년 만에 US오픈 16강 진출 신화를 재현할 수 있다. 한편 이형택은 3회전 진출로 상금 4만3천달러를 확보했다. 1995년 프로에 뛰어들어 이형택은 이날까지 199만5천달러를 벌어들여 13년 만에 총상금 200만달러 돌파도 눈앞에 왔다.

## 이천수, 페예노르트 전격 이적

### 4년 계약 이적료 26억원 ... 2년만에 유럽 재진출 꿈 이뤄

이천수(26·울산 현대)가 네덜란드 프로축구 1부리그 페예노르트로 이적한다.

울산은 지난달 31일 “페예노르트와 이천수의 완전 이적에 합의했다. 임대 기간 없는 완전 이적이며 계약 기간 4년, 이적료는 200만 유로(약 26억 원)”라고 밝혔다.

울산은 이날 새벽 페예노르트의 수정 제안을 받은 뒤 바로 구단과 김경남 감독, 선수 측이 검토에 들어가 이천수의 이적을 최종 결정했다. 페예노르트는 지난달 28일과 29일 두 차례 이천수 영입 제안을 보내면서 임대 후 이적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울산이 난색을 표하자 결국 완전 이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

이천수는 메디컬테스트를 받고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달 31일 오후 인천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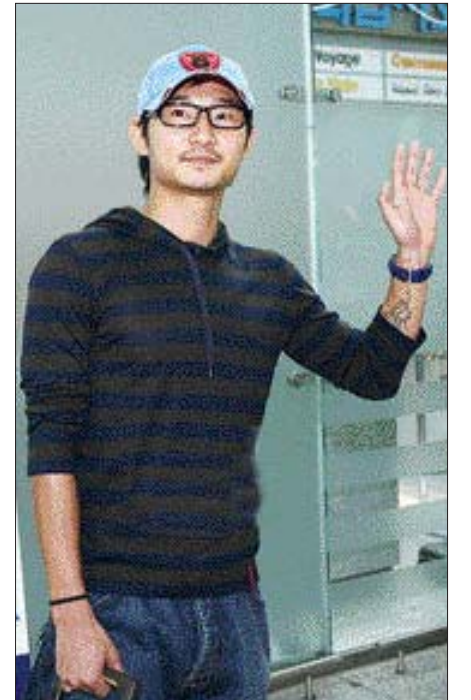
공항을 통해 네덜란드로 떠나려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출국하지 못했다.

이천수는 “바라던 것이 이뤄졌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너무 비리그만 고집했던 것 같다. 네덜란드 리그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좋은 리그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네덜란드행을 비리그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 2003년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뒤 적응에 실패하고 2005년 K-리그로 복귀했던 이천수는 페예노르트 입단으로 2년 만에 유럽 재진출 꿈을 이루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네덜란드 1부 리그 아약스·PSV와 ‘빅3팀’

### 페예노르트팀은?

페예노르트는 아약스, 에인트호벤과 더불어 네덜란드 프로축구 ‘빅3’를 구축하고 있는 강팀이다. 2002년 송종국(수원)이 처음 입단하면서 국내 축구팬들에게도 친숙한 페예노르트는 네덜란드 남서부 조이트홀란트주의 상공업,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을 근거지로 1908년 창단돼 1부리그에서 통산 14회

우승을 차지한 전통 명문이다.

하지만 페예노르트는 1998-1999 시즌 정규리그 우승 이후 아약스와 에인트호벤에 밀려 한 차례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 시즌에는 리그 7위로 마감하면서 ‘전통명문’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활력소의 영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페예노르트는 이번 시즌에 바

이에트 뮌헨에서 공격수 로이 마카이를 영입하고 네덜란드 대표팀의 ‘터줏대감’ 히오바니 판 브롱크호르스트를 다시 불러들여 공수 양면에서 보강을 시작했다.

이천수의 ‘깜짝’ 영입 역시 측면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맥락에서 이뤄졌다.

한편 이천수는 1981년 에인트호벤에서 뛰었던 허정무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시작으로 노정훈(NAC 브라다), 박지성, 이영표(이상 에인트호벤), 송종국(페예노르트), 김남일(엑셀시오르) 등에 이어 7번째 네덜란드 진출 선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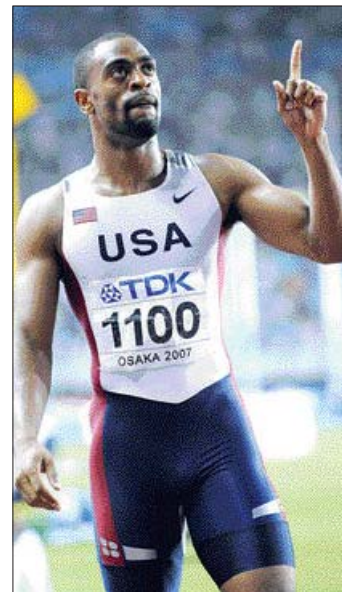


‘미끈한 몸매’ 힘찬 레이스

지난달 3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부 200m 경보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스프린트 더블’ 가이 칼 루이스도 넘었다

### 100m·200m 합계기록 0.18초 앞서



2007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자 100m와 200m를 휩쓸어 ‘스프린트 더블(단거리 2관왕)’을 달성한 타이슨 가이(25·미국·시진)의 두 종목 우승 기록 합계는 29초61이다. 지난달 26일 100m 결승 9초85와 지난달 30일 200m 결승 19초76을 더한 시간이다. 이 기록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20세기 최고의 스프린터’ 칼 루이스(미국)가 100m와 200m를 동시에 석권할 때 29초79보다 0.18초 빠르다. 루이스는 당시 100m를 9초99, 200m를 19초80에 끊었다.

역대 올림픽에서는 100m와 200m 금메달을 한꺼번에 따낸 선수가 모두 8명 나왔다. 하지만 1984년 루이스 이후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사상 처음 스프린터 더블을 해낸 모리스 그린(미국)에도 앞선다. 그린은 1999년 세비아 대회에서 100m 9초80, 200m 19초90을 찍어 함께 29초70이었다. 2005년 헬싱키 대회 100m, 200m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러(미국)의 합산 기록은 29초92로 한참 뒤진다.



9월1일(토)  
 ▲프로축구(광주-제주)(13 : 10·KBC)  
 ▲일본 프로야구(요코하마-요미우리)(14 : 00·MBC ESPN)

▲프로야구(삼성-SK)(16 : 30·KBSN SPORTS), (LG-한화)(17 : 30·MBC ESPN)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웨스트햄)(23 : 00·MBC ESPN)  
 2일(일)  
 ▲PGA 도이치뱅크 챔피언십 2R(04 : 00·SBS스포츠)

## 南美·阿 축구 누가 셀까

### 아르헨·나이지리아 8강서 격돌 ... 영·독 자존심 대결도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의 자존심 나이지리아, 유럽의 강호 잉글랜드와 독일이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 ‘4강 길목’에서 격돌하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30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코스타리카와 대회 16강전에서 전반에만 머리로 두 골을 터트린 수비수 가스톤 사우로의 ‘원맨쇼’를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후반에 두 골을 뽑아내면서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이어 벌어진 독일과 미국의 경기에서 독일이 2대 1로 승리했고 잉글랜드는 시리아를 상대로 3골을 뽑아내며 3대1로 완승했다. 이로써 8강 진출팀은 프랑스와 스페인, 페루, 가나 등 유럽 4개국, 남미 2개



국, 아프리카 2개국으로 압축됐으며 유럽팀은 유럽팀끼리, 남미팀은 아프리카팀과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